



반려동물보험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

메리츠화재

2023. 4. 28.

meritz 메리츠화재

금일 논의사항

1

펫보험이 왜 필요한가?

2

반려동물 보험 공급자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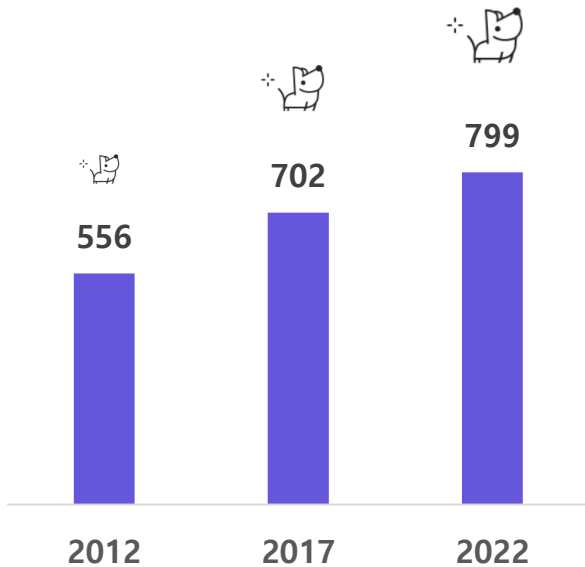
3

지속가능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?

1 국내 반려동물 수 및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임

국내 반려견&묘 개체 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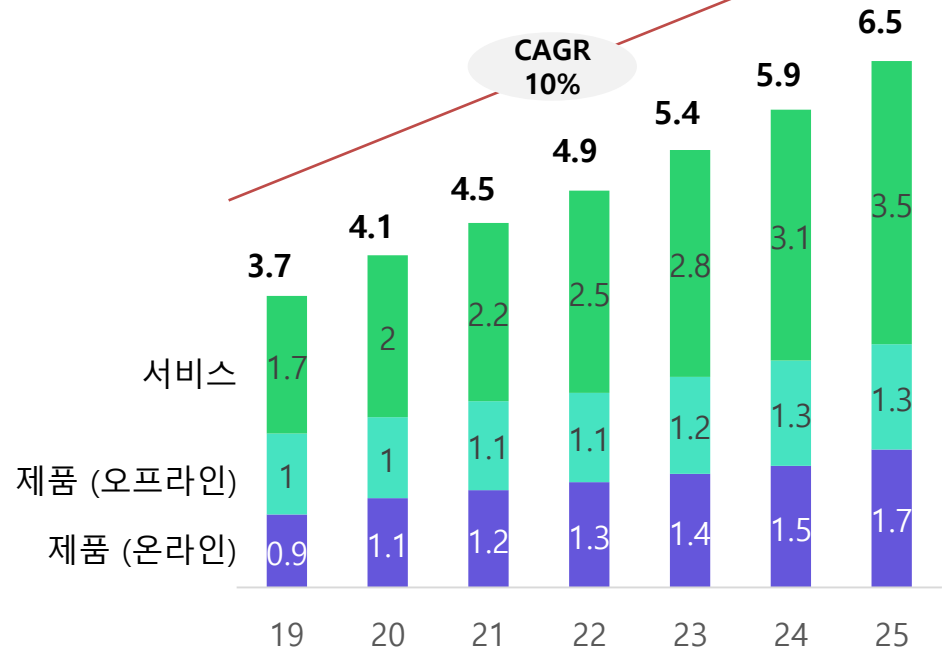
만 마리



출처: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

국내 반려동물시장 규모 및 전망

조원



출처: Bain & Company

1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,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
반려동물 케어 관련 관심사



예상 지출 증가 영역



2012년 반려동물 시장의 35%가 의료비였음
(출처: 경기연구원 2015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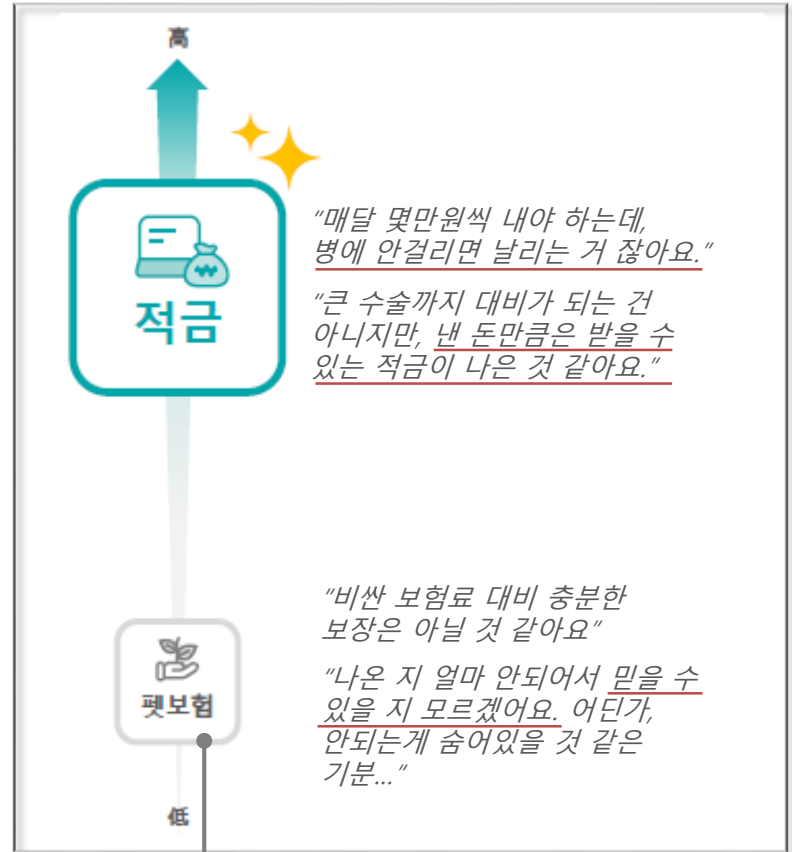
연평균 의료비는 5 ~ 300만원으로 조사;
수술 시 최대 1,000만원까지도 가능

1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걱정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반려인들은 많지 않음

동물병원에 대한 자유 연상 이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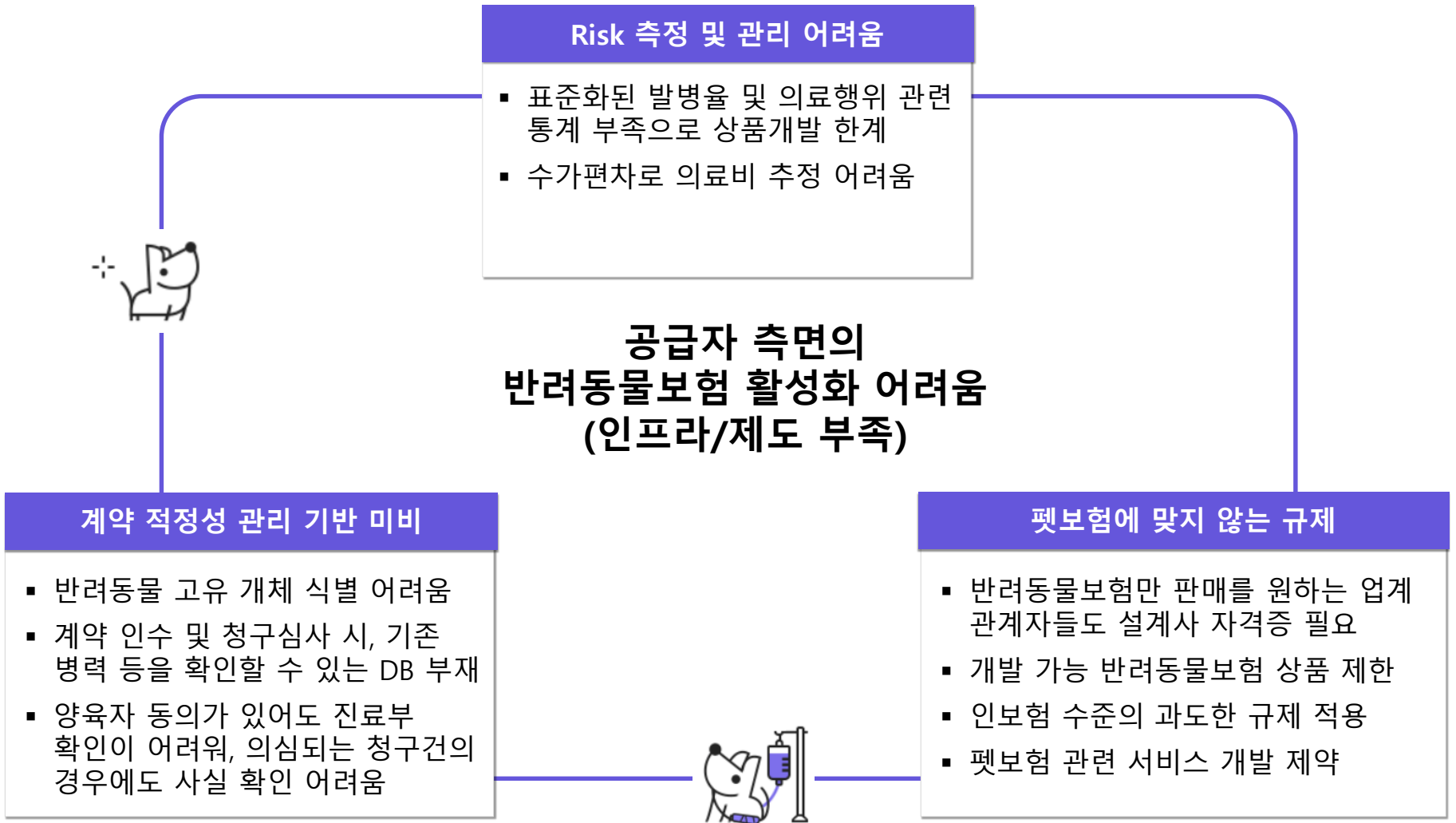


의료비에 대한 인식



- 08년, 국내 첫 펫보험 출시 후 손해율 관리 어려움으로 일부 상품 중지
- 23.2월 기준 유의미하게 (보유계약 1000건이상) 운영 중인 기업 6개; 22.8월까지 당사만 장기상품 운영

2 상품 공급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려운가?



3 제안 – 1) Risk 관리 및 상품개발 위한 data 구축

*Risk 측정 및 관리 어려움으로
상품 차별화 어려움*

- ❌ 표준화된 발병율 및 의료행위 관련 통계 부족으로 상품개발 한계
- ❌ 수가편차로 의료비 추정 어려움



*표준 data 구축을 통한 상품
개발 및 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*

- ✓ 표준코드의 확립 및 동물병원의 임상에서의 활용
- ✓ 제휴 동물병원과의 간편청구 시스템 구축
- ✓ 보험개발원을 통해 손보업계 공동의 Data 집적 및 참조율 고도화
- ✓ 진료수가 정보 투명성 향상

3 제안 - 2) 계약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

계약 및 청구의 적정성 관리 기반 미흡

- ❌ 반려동물 고유 개체 식별 어려움
- ❌ 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청구 심사 시, 기존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B 부재
- ❌ 양육자 동의가 있어도 진료부 확인이 어려워, 의심되는 청구 건의 경우에도 사실 확인 어려움



인수 및 청구 심사 시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→ 손해율 관리 역량 향상

- ✓ 보험사고조사시스템(ICPS)의 펫보험 계약 청구 조회기능 개선
- ✓ 동물 등록제에 고유정보 포함 및 고양이 의무화; 등록번호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
- ✓ 의심되는 보험 청구건에 대해 진료부 확인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 및 시스템

3 제안 - 3) 규제 완화를 통한 상품 및 판매 활성화

펫보험에 맞지 않는 규제

- ❌ 펫보험 전문 판매원의 경우도 설계사 자격증 필요 (기존 설계사는 수수료가 낮아 판매 유인이 적음)
- ❌ 인보험 수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, 마케팅 제약 (예: 1회 대면 의무, 금소법 기반의 심의 규정)
- ❌ 상품 종류의 제한 및 불확실성을 상품에 반영하는데 대한 제약
- ❌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의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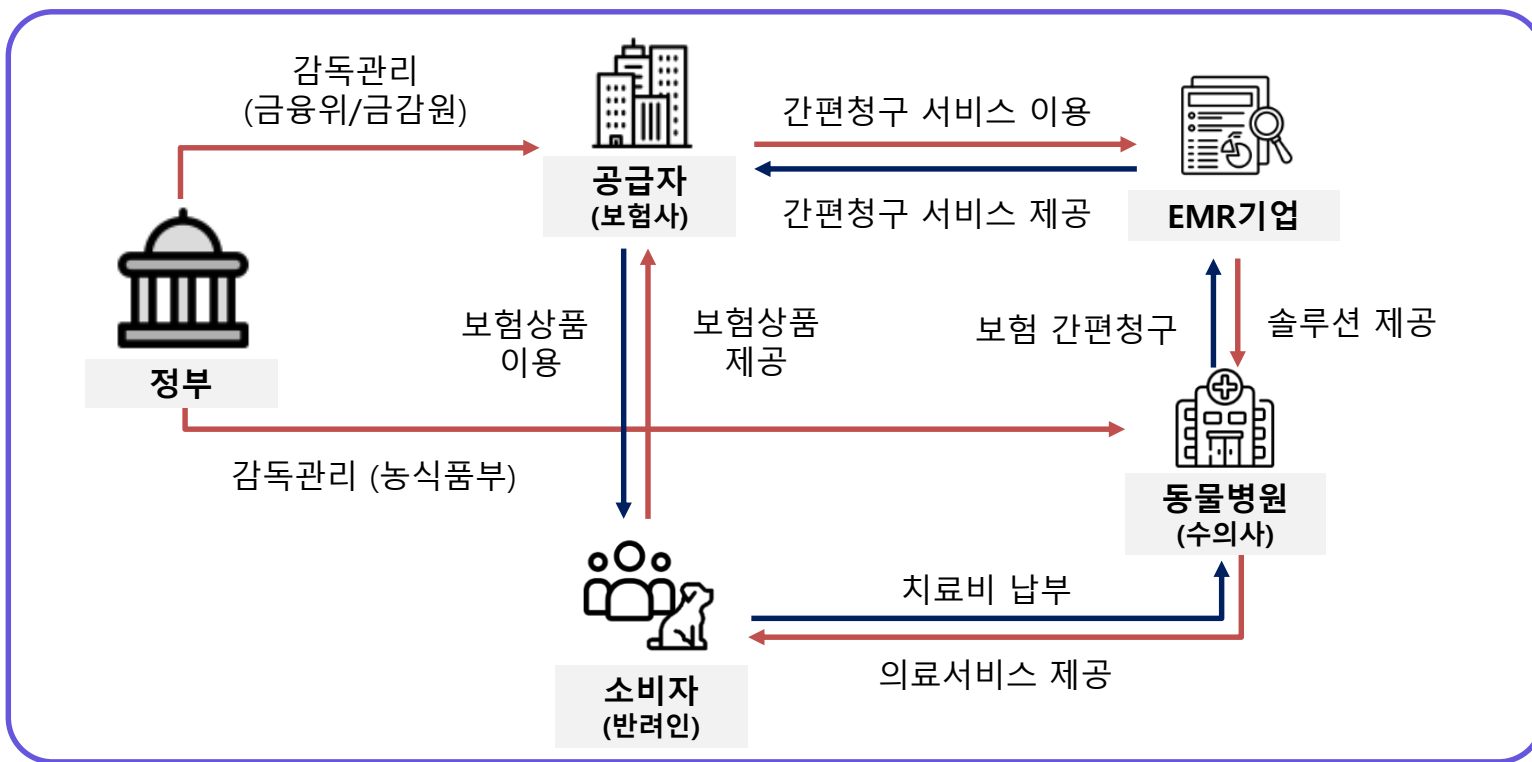


규제 완화를 통한 판매촉진 및 상품 / 서비스 고도화

- ✓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한 장기 반려동물보험 판매 허용
- ✓ 비교적 단순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(예: 대면1회 의무) 및 금소법 (예: 홍보물 심의) 규제 완화
- ✓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관련 규제 완화 (예: 종류, 안전할증 한도, 경험위험율 조정 조건, 사고량에 따른 할인/할증 허용)
- ✓ 제휴 동물병원 및 파트너사 등과 협업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

3 펫보험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win-win 할 수 있는 모델 확립 필요

現 펫보험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의 구성 및 역할



인프라와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,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

- ❌ 수의업계: 보험사와 연계 또는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니즈 부재
- ❌ 보험업계: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부재로 적극적 진출 어려움
- ❌ 정부: 역할 분산 또는 명확한 권한 확립 부재

마치며....

-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,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속가능성(손해액 관리 가능성)을 위한 산업 내 인프라와 초기 시장 붐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
-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win-win 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'정부 - 보험사 - 수의업계' 모두의 선제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
- 각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및 니즈의 조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, 작은 부분부터 협조를 시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신뢰 및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임

meritz 메리츠화재